

남구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합니다”

30억 규모...에너지 자립률 목표 18일 마감...주택·복지시설 설치

광주 남구는 내년도 30억원 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0일 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기업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

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



광주 남구 관계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일환으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

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정성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 진행 광산구, 12월까지

광주 광산구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차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1~2년 차 대원 대상 4시간 집합교육이 재개됐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광산구 민방위 교육은 △11월~7월12일 △8월12일~9월27일 △10월21일~12월6일이다.

사이버교육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교육은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화재 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은 기본교육과 실습 훈련, 사이버교육은 교육 동영상 본 뒤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해야 교육이 완료된다. **김성철 기자**

청년잡페스티벌 8명 취업 성과 서구 구직 지원 프로그램

광주 서구가 개최한 ‘청년 잡 페스티벌’에서 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10일 서구는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개소 6주년을 맞아 지난달 26~28일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8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청년 잡 페스티벌은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AI활용법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한 특강과 함께 취업박람회 ‘내일을 잡(JOB)아라’이 동시에 개최돼 광주 지역 7개 기업이 현장 채용을 진행했다. 행사에서 61명의 청년들이 면접에 응시해 8명의 구직자가 채용됐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어서 회사 구인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채용에 중점을 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달 26~28일 관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특강을 진행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인공지능 활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광주 서구는 인공지능(AI) 활용 초기 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범위 확대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 초기상담은 위기정보 입수 1인 가구 및 소재미확인 대상자 등 6000여 가구

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 전화시스템이다. 본인확인 및 위기상황 파악을 비롯해 △육구상환 파악 △심층 상담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초기 상담직원들의 업무를 지원, 직원들의 역량을 심층상담 및 복지 지원 업무에 집중해 위기가구에 신속한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화내용, 상담결과 등 AI 초기상담 결과는 복지전산망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더 많은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범위 확대·대상자 심층 상담에 집중하겠다”며 “복지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총선 개표소 현장지도 서부소방서

광주 서부소방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빗고을체육관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빗고을체육관 현황을 청취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개표 시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 관리사항 안내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김 서장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예방 순찰 및 개표소 소방력 전진 배치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로 예술관광 떠나요

광주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북구 삼각동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예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행센터에서는 음식과 문화를 소재로 한 ‘맛있는 아트 피크닉’과 ‘북구 아트 버스’ 등 2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맛있는 아트 피크닉’은 국립광주박물관과 문화·예술 시설이 모여있는 북구 중외공원을 둘러본 뒤 지역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보는 행사다.

1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상반기,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반기 등 총 11회 운영된다. 해당 기간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열리며 회당 15명이 대상이다.

‘북구 아트 버스’는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북구 대표 명소를 잇는 투어 형태다.

상반기에는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전문해설사와 함께 방문하

는 ‘오월 버스’를 5회 운영, 하반기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테마로 전시관을 관람하는 ‘비엔날레 버스’가 6회 진행된다.

오월 버스 운영은 오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비엔날레 버스는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운영기간 지정된 토요일 회당 20명에 한해 격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전통공예학교 입주 작가 모집 북구, 전통미술 분야 한정

광주 북구는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레지던스 공간에 입주할 청년 작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화·공예 등 전통미술 분야로 광주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0~39세 청년 중 광주에서 전통미술 분야 작품 활동을 하거나 광주 소재 미술대학 졸업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북구일 경우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북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 2월까지 10개월 간 3층 레지던스 공간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오픈 스튜디오와 전시회 운영도 각각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성현 기자**

음식점 위생소독 무상 지원 남구, 26일까지 희망업소 모집

광주 남구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영업장 환경 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26일까지 주방과 객석 등 영업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소규모 일반음식점 가운데 위생소독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20곳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업소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1순위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면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이며, 2순위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이다.

영업 시작일 기준으로 오래된 음식점은 3순위로 지원하며 광주맛집을 비롯해 광주 대표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4순위다.

위생소독을 희망하는 업주는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062-607-4405), 담당자 이메일(pmh980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이 기자**